

기술과 철학, 어쩌다 만났을까?

글 | 손화철 _ 서울대학교 강사 whachuls@hotmail.com



라이트형제의 비행성공 100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과학박물관에 전시된 비행기 모형

기술과 철학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철학자들은 갑자기 기술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 필자가 기술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그게 뭐죠?”라는 물음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똑같은 “그게 뭐죠?”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나가는 약간의 호기심만이 느껴지지만, 철학 전공자들이 물을 때는 그것도 철학이랄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냉소마저 느껴진다. 공학자들의 “그게 뭐죠?”는 둘 중 하나다. 먼저 자신의 전문분야가 철학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자가 공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을 수상해하며 경계의 눈초리를 쏘아 보내는 경우다.

이렇게 물음의 의미도 미묘하게 다른데, 어떤 경우든 대답은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우선 궁금하다고 해서 차분히 앉아서 기술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즉석에서 일목요연하고 단정적인 정의를 생각해 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짧은 글로 기술철학을 소개하게 된 것은 좋은 기회다. 먼저 철학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고 기술철학에 대해 알아보자.

경이에서 시작된 철학

‘철학이 먼저 생겼을까, 기술이 먼저 생겼을까’에 대한 답은 당연히 기술이 먼저다. 언제부터 인류가 존재했느냐에 대해서 요즘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견이 채택되든 기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철학은 인류가 생겨난 뒤 한참 후에야 시작되었다.

철학 이전의 시대를 ‘신화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럼 신화와 철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심을 하느냐”는 것이다. 신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었다. 세상은 어떻

게 생겨났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죽는지 등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화는 충실한 답을 만들어 놓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마련된 신화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신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없었다. 그들은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철학의 시대는 인간이 신화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최초의 철학자라 알려지는 탈레스는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물음의 중요성은, 이미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신화의 설명에 의문을 품었다는 데 있다. “철학은 경이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이런 태도를 역설적으로 표현해준다. 신화적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경이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경이는 단지 “와!”하는 경탄이 아니라, 탐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움의 감정이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러한 태도와 연관된다. 신화의 세계에서는 앎의 진보가 있을 수 없다. 학문의 시작과 진보는 인간 자신과 주변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의문을 품을 때 시작된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의 근저에 철학적 태도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기술과 철학의 관련성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철학적 태도, 그러니까 의심하는 태도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은 여전히 동일하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과학과 문학, 사회학 등이 분과학문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앎이란 무엇인가?” “옳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철학의 영역에 남아 있다. 철학에서는 또 다른 분과학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과학(물리학, 생물학)이

란 무엇인가?”는 과학철학의 물음이고, “기술(공학)이란 무엇인가?”는 기술철학의 물음이다.

현대의 신화를 넘어서는 기술철학

기술철학의 물음 역시 기술에 대한 경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기술에 대해 경이롭게 생각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전까지 기술은 인간 삶의 너무도 당연한 부분이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철학자들이 기술에 눈을 돌린 것은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부터다. 따라서 **기술철학은 ‘현대 기술철학’ 혹은 ‘공학기술의 철학’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지도 모른다.**

기술철학자들이 느낀 경이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인류역사상 오늘날과 같은 속도와 규모로 기술이 발전한 적도, 기술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처럼 컸던 적도 없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불과 12초 동안 36m를 비행한지 66년 만인 1969년 인간이 처음으로 달을 밟았다. 루미에르 형제가 3분짜리 영화 ‘기차의 도착’을 유료로 상영한 것은 1895년이었는데, 오늘날 2시간30분짜리 영화가 무선인터넷을 통해 허공을 지나 내 컴퓨터로 들어온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주말부부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사는 기러기 가족이 부지기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러한 현상들은 기술철학자들을 “도대체 (현대)기술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라는 물음으로 이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기술의 놀라운 변화에 접하고 있지만, 모두가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묻지는 않는다. 그 변화의 규모와 빠르기에 압도당하여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거나, 기술발전 자체에 금방 익숙해져서 그것이 초래하는 변화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술발전을 인간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기거나 기술발전이 없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신화적이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철학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발전이 가능했던 것인데, 정작 그 산물에 대해서는 신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부 철학자들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화를 넘어서려 한다는 점에서 기술철학도 철학이다.

기술철학은 기술의 엄청난 발달과 산물들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시 묻고 새로운 대답을 추구하



세계 첫비행에 성공한 라이트형제

는 것이 비생산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근대의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인간은 해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천둥번개가 왜 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설명에 대해 다시 물었을 때 새로운 과학이 시작되었다.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수많은 다른 물음들로 이어져 기술철학의 여러 논의를 이룬다. 현대공학기술과 과학은 구별될 수 있는가? 기술과 예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거의 기술과 현대의 기술(공학)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는 유의미한가? 기술발전은 계속될 것인가? 그 발전은 바람직한가? 기술발전의 목표는 무엇인가(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술은 인간적인가? 기술은 정치적인가? 기술은 자율적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글들에서 다루어 보겠다.

굵어 부스럼이란 말이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공학을 주도하는 공학자들이 기술철학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철학이 현대공학기술에 대한 경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학자들 자신이 먼저 기술철학에 뛰어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있다.